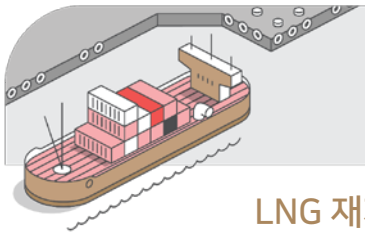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2.14 [801호]

DAOL 다올투자증권

LNG 재개 분위기, 한화의 Austal USA 활용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탱커가 견인하고 있는 신조선가지수 상승*

① 신조선가지수는 2주 연속 소수점 상승했는데, 지난주는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하락했지만, 케이프 벌크선, 탱커의 VLCC(128백만달러), HandyMax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2026년에는 2029년 납기 LNG선이 신조선가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 *LNG선 수주 소식과 시장 의견들*

② 일본 NYK는 HD현대중공업에 LNG선 4척 + 옵션 4척의 LOI를 체결합니다. 2028~2029년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260백만달러로 전하는데, 미국 Cheniere Energy 장기 구매 계약을 위한 투입 분이고, 200k-CBM일수도 있다는 풍문이어서, 신조선가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③ 한화오션이 건조 조선사로 선정된 Equinor의 용선발주 2+2척의 선사가 Knutsen OAS Shipping으로 선정됩니다. 곧 전자 공시가 기대됩니다. Knutsen은 이번 용선 발주 외에 추가 슬롯을 한화오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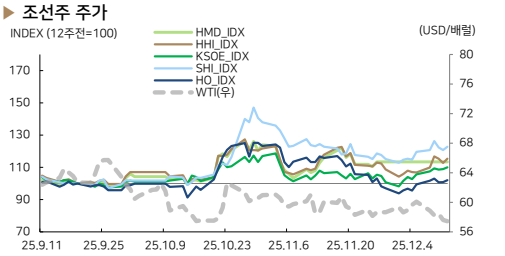
④ Clarksons 리서치의 고든은 LNG선 시장이 최근 4~5주 강하게 반등했고, 대규모 수출 물량 때문에 2026년이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⑤ 다만, Poten & Partners는 중국의 LNG 수요가 향후 감소하고, 이에 비해 220MTPA의 신규 LNG 공급은 부담스럽다고 진단합니다. 유럽의 수요가 성장하고 있고, 남아시아 등의 대안 시장이 있지만, 수요 경로가 순탄치 않아, LNG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안 시장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FSRU 등 수입 터미널 투자 보도들도 함께 있습니다.
⑥ 폴란드 Gaz-System은 LNG FSRU 2단계 확장을 진행합니다.
⑦ 모로코도 FSRU 2기 기반의 터미널을 2027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시장에 잉여 LNG-FSRU가 없기 때문에, LNG선의 개조가 유력해 보입니다.

▶ *Austal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한화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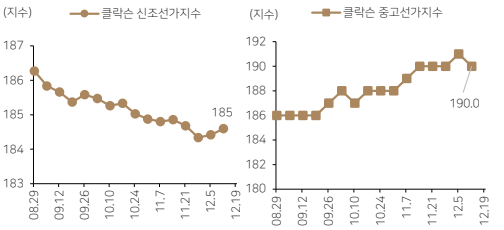
⑧ 한화그룹은 호주 Austal 지분을 9.9% 보유하고, 19.9%로 늘리기 위해 호주 정부의 승인을 대기 중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는 조건부 지분 확대를 허락했습니다.
호주 Austal의 미국 종속사 Austal USA는 미국의 LCS(연안경계함) 시리즈를 건조하는 등 미국 소형 전투함 및 지원함 시장에서 입지가 탄탄한 회사입니다. 한화그룹의 미국 특수선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차트

▶ 조선주 주가



▶ 선가지수



▶ 후판, 주요 선종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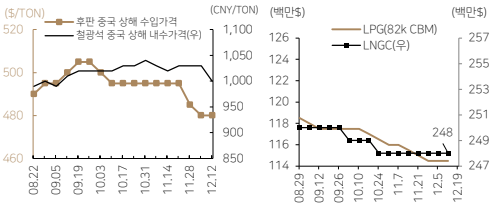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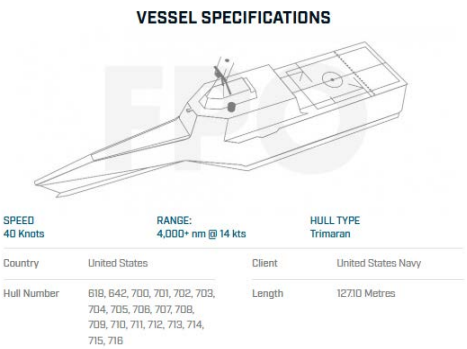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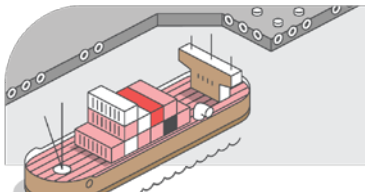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Fig. **Austal USA가 건조한 미국 LCS(연안경계함)**



주시 뉴스

✓수주, ?수주설

	수주	12월2주 주시뉴스	수주	12월1주 주시뉴스
선가&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184.60p로 0.18p 상승. 탱커 또 상승 △ HD현대, 인도에 조선소 건설 계획		△ 신조선가지수 184.42p로 0.08p 상승. 중고선가지수 191p로 1p 상승 ▷ Yangzijiang의 Ren Yuanlin 회장, "중국 조선 지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린십		△ 선주 Exmar는 2026년 2분기에 첫 암모니아 D/F 가스 운반선을 인도받을 계획		△ 원자력 추진 상선, 2026년부터 '주류 산업'로 진입 전망. 규제 정비가 전환점
LNG	✓ ✓	▲ NYK Group의 HD현대중공업에 LNG선 4+4척 발주 ▲ Equinor의 용선발주에 Knutsen OAS Shipping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화오션 4척 수주 임박 ▲ Clarksons Research 스티브 고든 "VLCC 겨울 강세… LNG 시장은 곧 폭발적 성장" ▼ Poten & Partners 중국 LNG 수요 감소 전망		▲ LNG 신조선 문의 증가. 2029년 슬롯 내년 매진 전망 ✓ ▲ HD현대삼호, 아시아 선주 LNG선 1척 수주 ? ▲ Mozambique LNG 프로젝트에 TotalEnergies 영·네덜란드 금융 철회분 '자체 자본투입' 결정 ? ▲ Louisiana 주정부, Commonwealth LNG 허가 재발급. 환경단체 소송 후 한 달 만에 복원 ? ▲ 포스코인터내셔널, Alaska LNG와 20년 장기 LNG offtake, 투자, 강재 공급 계약 체결
가스선	✓	▲ HD현대중공업 VLGC 2척 수주. 클락슨 입력		△ Foresight Group(Ravi Mehrotra), 그리스 VLGC 매입. 선대 10척 목표로 확장 가속
컨테이너선	✓	▽ Hapag-Lloyd는 메탄올 D/F 4,500-TEU, 중국에 발주	✓	▽ George Economou의 TMS Group, 중국에 11,400-TEU[LNG D/F] 최대 10척 추가 발주 △ Zim 인수전 본격화. Hapag-Lloyd, MSC, Maersk까지 관심 표명 △ 동원그룹, HMM 인수 재추진… 10조원 규모 빅딜 재부상
탱커	 ✓	▲ Clarksons 의견: 탱커 시장,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움 ▽ 그리스 선주 Vyron Vasileiadis는 중국에 컨테이너선과 LR2 발주	✓ ✓	▲ 한화오션, 2주 만에 두 번째 VLCC 수주 ▽ Zodiac Maritime, VLCC와 9,000-TEU 등 16척을 중국에 발주
해양/디펜스		▲ 한화그룹. 호주 오스탈 조선 인수 승인 득		▲ General Dynamics NASSCO-DSEC-삼성중공업 3자 간 양해각서(MOA) 체결
기타		△ 그리스 및 노르웨이 선주로부터 계약 추가한 Hengli의 잔고 200척. 2029년까지 채워짐	?	▽ Shell, Argentina LNG 프로젝트에서 철수. 그러나 YPF는 계속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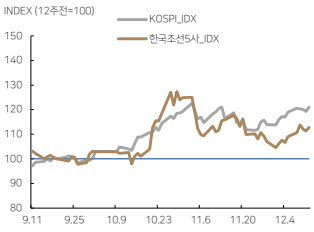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2.14 [8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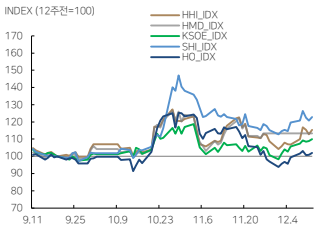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Peer Group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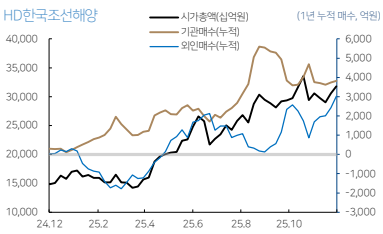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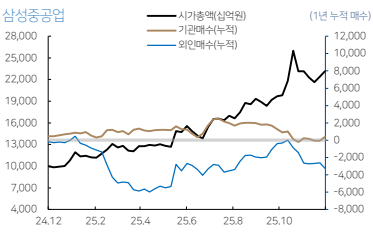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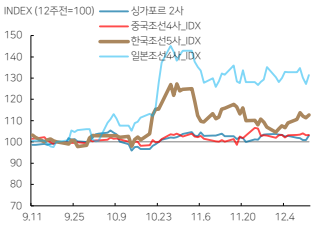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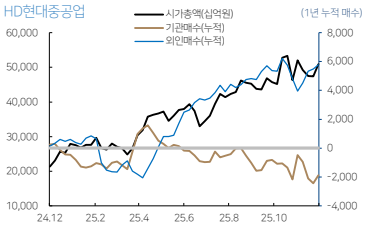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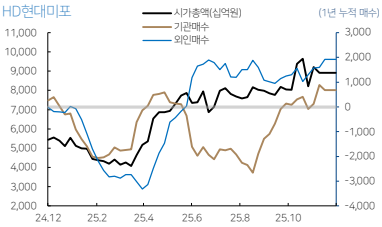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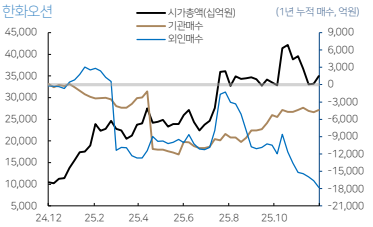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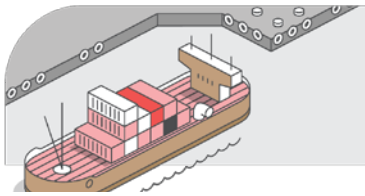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4.3%	-1.8%	-7.2%		-19%	-28%
	CRB INDEX		-2.6%	-1.4%	0.2%		1%	10%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21,497	4.2%	4.9%	14.7%		114%	516%
	HD현대중공업	34,210	8.0%	5.8%	10.9%		136%	380%
	삼성중공업	15,704	2.7%	-0.2%	24.9%		132%	411%
	한화오션	23,657	2.6%	-9.9%	1.3%		235%	581%
	HD현대미포	6,032	0.0%	4.9%	10.9%		64%	156%
싱가포르	KEPPEL	14,267	0.1%	0.3%	18.4%		48%	119%
중국조선	CSSC	36,492	1.3%	-0.7%	13.3%		-1%	52%
	CSSC OMEC	4,488	2.0%	11.1%	8.0%		19%	39%
	YANGZIJIANG	10,638	1.7%	2.6%	12.6%		21%	153%
일본조선	NAMURA SB	1,851	6.2%	6.4%	23.9%		167%	867%
	MITSUI ES	3,903	6.2%	0.3%	99.9%		267%	1385%
	KAWASAKI HI	12,617	9.4%	11.0%	31.4%		83%	262%
	SUMITOMO HI	3,445	1.4%	6.7%	28.4%		34%	52%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819	4.5%	2.0%	19.3%		27%	3%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4,549	-7.0%	0.0%	34.5%		7%	-4%
	SEADRILL	1,981	-0.7%	5.1%	-3.1%		-17%	10%
	Valaris	3,766	-9.7%	-4.0%	5.9%		24%	10%
	ODFJELL SE-A SHS	989	-1.4%	2.4%	9.1%		18%	50%
IOC+	ExxonMobil	501,084	2.0%	0.6%	8.8%		7%	13%
	Shell	207,426	-0.9%	-5.3%	1.0%		14%	32%
	BP	91,836	-3.0%	-6.1%	5.7%		11%	-4%
	TOTALEnergies	144,106	-1.4%	0.5%	7.3%		4%	0%
	Chevron	302,008	0.0%	-2.2%	-2.4%		-3%	11%
	ENI	58,920	-1.0%	-3.0%	9.0%		20%	24%
	Equinor	58,760	-1.2%	-4.7%	-2.8%		-10%	35%
ENG.	SBM	4,868	-3.2%	8.0%	10.7%		44%	66%
FEED.	Technip FMC	18,737	0.7%	7.9%	19.1%		49%	103%
	SAIPEM	5,458	-4.6%	0.6%	2.4%		-10%	131%
	NOV	5,978	1.4%	6.4%	23.0%		9%	17%
	MODEC INC	5,633	-6.5%	-1.6%	65.5%		298%	1116%
	WORLEY PARSONS	4,253	-4.7%	-11.7%	-14.4%		-5%	15%

엔진 / 부품								
엔진	WARTSILA	21,133	2.4%	13.7%	22.9%		74%	274%
한국엔진	한화엔진	2,608	7.1%	9.2%	1.2%		178%	502%
	STX엔진	1,045	9.7%	19.8%	-16.4%		102%	182%
	HD현대마린엔진	2,038	6.6%	6.0%	-2.5%		308%	1171%
기자재	한국카본	1,070	8.0%	-4.5%	-8.1%		189%	161%
	동성화인텍	538	5.6%	-16.5%	-17.4%		81%	137%
	세진중공업	705	2.2%	-5.2%	-5.2%		123%	214%
	SK오션플랜트	844	10.7%	0.5%	-22.1%		56%	-11%

해운								
해운	MAERSKB DC Equity	36,405	0.4%	16.4%	8.5%		22%	3%
	SHIP FINANCE INTL LTD	1,120	-6.7%	-6.1%	-5.8%		-23%	-5%
	CLARKSON PLC	1,550	-0.5%	4.5%	8.4%		-7%	27%
	EURONAV NV	3,070	-1.4%	0.7%	7.7%		-7%	-2%
	FRONTLINE LTD	5,089	-2.2%	-8.1%	3.2%		61%	69%
	NORDIC AMERICAN TANKERS LTD	726	-8.3%	-6.5%	4.9%		30%	-4%
	KNOT OFFSHORE PARTNERS LP	459	0.2%	9.0%	32.6%		88%	12%
LPG	BW Offshore	718	2.2%	11.2%	4.1%		44%	73%
	DORIAN LPG LTD	1,050	-1.8%	-7.8%	-21.1%		3%	2%
	EXMAR NV	984	2.4%	-4.3%	3.8%		-10%	2%



다올 선박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신, 전자공시 등)

▲ NYK Group의 HD현대중공업에 LNG선 4+4척 발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Equinor의 용선발주에 Knutsen OAS Shipping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화오션 4척 수주 임박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HD현대중공업 VLGC 2척 수주. 클락슨 입력
- 아래의 가스선 섹션 참고

▽ Hapag-Lloyd는 메탄올 D/F 4,500-TEU, 중국에 발주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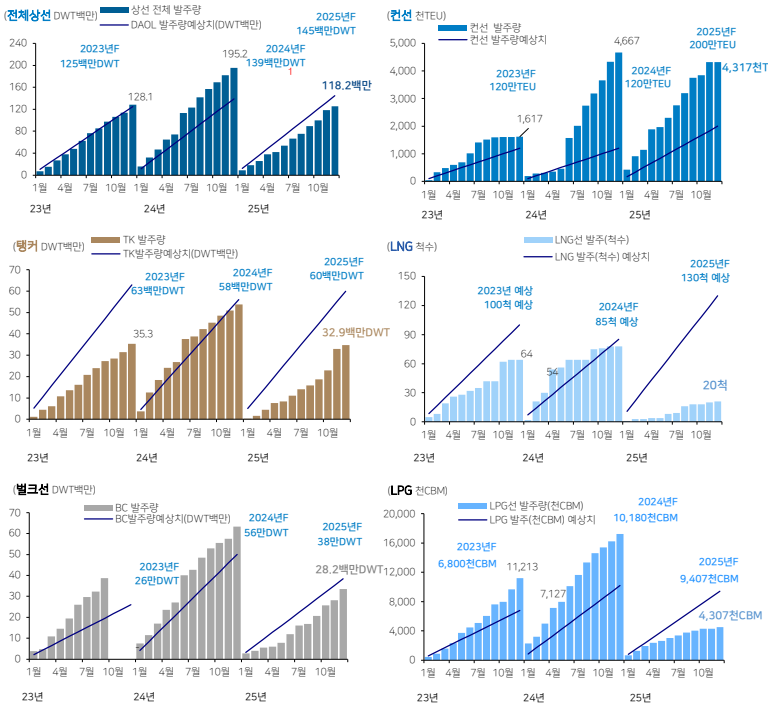
▽ 그리스 선주 Vyron Vasileiadis는 중국에 컨테이너선과 LR2 발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HD Hyundai HI (HHI)→Unknown, LPG(93k-CBM) 2척
- 알려지지 않은 수주건. 클락슨에 입력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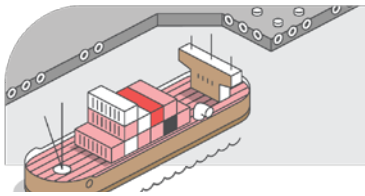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5년 12월 1주								
대한민국	Hanwha Ocean	25.12.01	Unknown	Unknown	TK	320k DWT	2028	2
		25.11.27	한국	HMM	CONT	13k TEU	2028~2029	4
	HD Hyundai Samho	25.12.01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8	1
중국	GSI Nansha	25.11.01	유럽	Grandi Navi Veloci	FERRY	3k Passengers	2029	2
	Qingdao Beihai SB	25.12.02	중국	Winning Intl	BULK	325k DWT	2029	6
중국	CMHI (Jiangsu)	25.12.02	유럽	United Waterways	CRUISE		2029~2030	4
							2028~2029	4
	COSCO HI (Guangdong)	25.08.01	Unknown	Unknown	CONT	3k TEU	2027~2028	4
	Jiangsu New Hantong	25.11.14	유럽	Trafigura Maritime	TK	319k DWT	2029	2
	Wuhu Shipyard	25.12.02	중국	Anhui Wanbang Shpg	CONT	2k TEU	2028	2
	Yantai CIMC Raffles	25.08.01	유럽	Alpha Bulkers	CONT	3k TEU	2027~2028	4
	Nantong Xiangyu SOE	25.09.01	아시아	Winking Shpg	BULK	211k DWT	2028	2
		25.10.0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7~2028	2
		25.09.30	아시아	Ambuja Cements	BULK	14k DWT	2027~2028	7
		25.11.01	유럽	Atlantic Bulk	BULK	64k DWT	2027~2028	4
	Hengli SB (Dalian)	25.12.04	Unknown	Unknown	BULK	181k DWT	2027	1
		25.11.28	아시아	Eastern Pacific Shpg	CONT	6k TEU	2028	4
		25.11.24	중국	Zhenghe Mainline	CONT	3k TEU	2028	5
	Tri Waters Anhui	25.12.02	중국	Shenzhen Weiqiao	BULK	10k DWT	2027~2028	10
	Zhejiang Xinxinzhou	25.08.01	중국	Hainan Jinyuda Shpg	PTK	14k DWT	2027	1
	CMI (Qingdao)	25.12.03	유럽	Neu Seeschiffahrt	BULK	342k DWT	2029~2031	6
	Zhoushan Newrising	25.06.16	중국	Zhejiang Minghang	OTHERS	5k DWT	2026	2
2025년 12월 2주								
대한민국	HD Hyundai HI (HHI)	25.12.10	Unknown	Unknown	LPG	93k cu.m.	2028	2
중국	Fujian Southeast SB	25.06.01	중동	Halul Offshore	OFF-SUPP	#VALUE!	2027	3
	Jiangmen Nanyang	25.12.01	Unknown	Unknown	BULK	65k DWT	2028	7
						41k DWT	2027~2028	4
		25.12.09	아시아	Jinhui Shipping	BULK	65k DWT	2028	1
		25.11.30	Unknown	Unknown	BULK	65k DWT	2027	2
						41k DWT	2027	1
	Jiangsu New Hantong	25.11.20	일본	Fukujin Kisen	BULK	211k DWT	2028	2
	Jiangsu Zhenjiang SY	25.04.01	중국	Unknown Chinese	OFF-기타		2026	1
		25.12.05	중국	Ningbo Yougang Barge	OFF-기타		2027	1
	Tsuneishi Zhoushan	25.09.01	Unknown	Unknown	BULK	82k DWT	2027	1
	Zhejiang Zhenxing	25.01.01	중국	Unknown Chinese	CONT	2k TEU	2026	1
	COSCO HI (Zhoushan)	25.09.01	유럽	Knutsen NYK	TK	154k DWT	2028	1
	CMCS	25.12.02					2028	1
	Yizheng Yangzi SB	25.05.01	Unknown	Unknown	BULK	42k DWT	2026	2
	Hengli SB (Dalian)	25.12.03	유럽	Minerva Marine	PTK	114k DWT	2027~2028	6
				Laskaridis Mrtm	PTK	114k DWT	2027~2028	2
		25.12.10	Unknown	Unknown	BULK	82k DWT	2027	1
					PTK	114k DWT	2028	2
		25.12.09	유럽	Aegean Bulk Co. Inc.	BULK	82k DWT	2027~2028	4
	Qidong Xiangyu	25.09.01	Unknown	Shintoku Kaiun	BULK	64k DWT	2028	1
			일본	First Marine Service	BULK	64k DWT	2028	1
	SOHO I&T SB	25.09.0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6~2027	2
	COOEC Qingdao	25.11.01	Unknown	COOEC	해양설치		2028	1
일본	Higaki Zosen	25.03.01	Unknown	Unknown	BULK	14k DWT	2028	1
	Usuki Zosensho	25.09.01	Unknown	Unknown	GASC	13k DWT	2028	1



다올 선박

2025.12.14 [801호]

DAOL 다올투자증권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184.60p로 0.18p 상승. 탱커 또 상승

신조선가지수 184.60p로 0.18p 상승. 대형 컨테이너선 신조선가는 하락했지만, 케이프 벌크선과 탱커의 VLCC, MR이 상승
중고선가지수는 지난주 상승한 1p를 반납하며 190p

△ HD현대, 인도에 조선소 건설 계획

HD현대는 약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투자하여 투티코린에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
이는 인도 정부가 유치하는 조선업 신규 거점 중 가장 큰 프로젝트로 평가
HD한국조선해양은 12월 7일(현지시간) 인도 마두라이에서 열린 '타밀나두 투자 콘클레이브 2025'에서 타밀나두투자청과 조선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투티코린은 인도 국영 조선사들이 신규 조선소를 짓고 있는 인도 조선업의 핵심 거점
HD현대는 이번 인도 거점 확보를 통해 베트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킹살만 조선 산업단지)에 이어 해외에서 연 최대 60척을 건조할 수 있는 글로벌 분산 생산 체계 더욱 확장 계획
미국, 페루, 인도 등과 협력하여 군수지원함 개발, 해군 함정·상륙함의 설계·기술·MRO를 포함하는 패키지형 사업에도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음
☞ 풍문에 대한 조회 공시에서, MOU 체결은 인정했지만, 투자 금액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 그리스 및 노르웨이 선주로부터 계약 추가한 Hengli의 잔고 200척. 2029년까지 채워짐

중국 Hengli Shipbuilding은 8척의 신조 선박을 추가 수주하여 잔고(Orderbook)를 약 200척까지 늘림
이번 계약은 그리스 선주 2곳, 노르웨이 선주 1곳, 그리고 미공개 선주 1곳을 포함
Capital Maritime & Trading (그리스, Evangelos Marinakis 소유)는 aframax PC선 2척을 발주
Capital은 지난 10월에도 Hengli에 capesize 벌크선 2척(2026년 말 인도)을 발주한 기존 고객
Aegean Bulk (그리스, George와 Panagiotis Angelopoulos 형제 소유)는 15년 만에 신조 시장에 복귀하여 82k-DWT 벌크선 4척을 계약
Uthalden Maritime (노르웨이, Harald Moraeus-Hanssen 소유)는 capesize 벌크선 1척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
Uthalden 역시 기존 고객으로, 현재 Hengli에서 82k-DWT 벌크선 2척을 건조 중이며 인도는 향후 2년 내 예정
미공개 선주 1곳이 kamsarmax 벌크선 1척을 발주함
Hengli는 선박들의 정확한 인도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잔고는 2029년까지 채워져 있다고 밝힘
최신 8척을 제외하고도, Hengli의 잔고는 Clarksons 기준 184척이며, 지난 5개월간 VLCC, VLOC, 피더 컨테이너선 등 85척을 수주
Idan Ofer의 싱가포르 기반 Eastern Pacific Shipping은 이 조선소에 총 18척의 선박을 건조 중
Hengli는 기니의 대규모 Simandou 철광석 프로젝트 시작으로 인한 대형 벌크선 수요 증가와 탱커 시장 호황이 수주 급증의 원동력이라고 설명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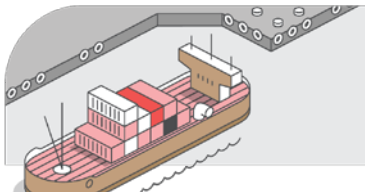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 선주 Exmar는 2026년 2분기에 첫 암모니아 D/F 가스 운반선을 인도받을 계획

이 시점은 새로운 해양 연료(암모니아) 관련 규정 개정안이 승인될 예정인 시점과 일치
Exmar는 46,000-CBM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중 첫 2개의 엔진이 암모니아 테스트를 완료하고 설치되었음을 밝힘
테스트 단계에서 개선점이 발견되어, 모든 관련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로 합의
이 개선점들은 다가오는 3번째 엔진 테스트에서 해결 및 검증될 예정
단일 실린더 테스트 결과, 디젤 모드 대비 암모니아 모드에서 더 나은 효율을 확인
100% 부하에서 파일럿 연료 5% 주입 시, 배기 파이프에서 암모니아 슬립이 매우 낮고 질소산화물(nitrous oxide) 배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첫 두 선박은 확인된 설계 변경 사항을 통합하여 필요한 업그레이드 및 개조를 거칠 예정. 첫 선박의 계획된 인도는 2026년 2분기로 예상
Exmar, Lloyd's Register, 벨기에 Federal Public Service for Mobility and Transport는 가스 운반선에서 암모니아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잠정 지침 개발을 지원
이들은 IGC 코드(액화가스 운반선 건설 및 장비 규정)의 개정을 이끌었으며, 이는 암모니아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았던 제한 사항을 제거
이 잠정 지침은 이번 달 IMO CCC 11차 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6년 5월로 예정된 IMO 해사 안전 위원회(MSC 111차)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
Exmar는 이 IGC 코드 변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해 왔음
2023년에 Exmar CEO Carl-Antoine-Saverys는 당시 규정 하에서는 암모니아 운반선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은 다른 코드에 속하여 벙커링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Exmar는 2021년 Lloyd's Register로부터 암모니아 D/F 중형 가스 운반선에 대한 기본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받으면서 암모니아를 해양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
Exmar에게 자체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오랜 전략적 우선순위였으며, 암모니아는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줄이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언급

▶ LNGc

▲ NYK Group의 HD현대중공업에 LNG선 4+4척 발주

일본 선주 NYK Group은 대형 생산자와의 용선 계약에 맞춰 최대 8척의 LNG선 신조 발주를 준비 중
HD현대중공업과 4척+옵션4척의 LOI를 체결
일부에서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선호하는 대형인 200k-CBM급 선박으로 예상
2028~2029년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260백만달러 수준으로 예상
신조선은 미국 LNG 생산업체인 Cheniere Energy와의 장기 용선 사업에 맞춰 계약되는 것으로 알려짐
올해 초 잠잠했던 LNG선 신조 발주 문의가 2025년 하반기 들어 급증하고 있음
Cheniere Energy는 2026년부터 LNG 생산량을 처음으로 50MTPA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
현재 건설 중인 200MTPA의 LNG 생산 능력 추가 물량 중 일부는 선박 확보가 되지 않았고, 2020년대 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주 기대
올해 최종투자결정(FID)이 완료된 약 80MTPA의 신규 액화 프로젝트(대부분 미국)도 선박 수요를 크게 자극하고 있음
노후하고 효율이 낮은 스팀터빈선과 1세대 D/F 선박의 교체 수요도 새로운 LNG선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2028년 인도 슬롯은 거의 채워졌고, 시장의 관심은 2029년 인도 슬롯에 집중되고 있음
한화오션은 최근 LNG선 문의 증가로 2029년 슬롯이 2026년 중반까지 매진될 것으로 예상
일부 투기성 발주 관심도 조기에 나타나고 있음
TotalEnergies의 Mozambique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총 17척의 LNG선 장기 슬롯(HD현대삼호, 삼성중공업) 문제를 논의 중이어서 2029년 슬롯 압박 더 높음



다올 선박

▲ Equinor의 용선발주에 Knutsen OAS Shipping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한화오션 4척 수주 임박

Knutsen OAS Shipping이 노르웨이 Equinor의 LNG선 신조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목됨
Knutsen은 Equinor가 슬롯을 예약한 한화오션과 긴밀히 논의 중
Equinor는 원래 174k-CBM LNG선 2척 + 2척 옵션으로 입찰을 열었고, 업계에서는 최소 3척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
Knutsen은 한화오션과 추가로 슬롯 확보를 위해 협상 중이며, 이는 추가 사업 또는 자체 계정을 위한 슬롯 확보일 수 있음
Knutsen은 이태리 Edison과도 174k-CBM LNG선 신조 1척에 대한 장기 용선 계약을 따낸바 있음
이 선박은 한화오션에서 건조되며, 2028년 인도 예정
지난달 Equinor 용선발주 숏리스트는 BW LNG, Knutsen, Maran Gas Maritime, NYK, Seapeak이었음
Equinor는 선령 20년의 노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선박을 필요
Equinor 사업 외에, 이탈리아 Eni의 1~3척 LNG선 신조 입찰도 진행. 조선소 잔고나 LOI가 있는 선주 한정
상반기 발주 부족으로 소폭 하락했던 LNG선 신조선가는 최근 문의 증가에 힘입어 250백만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며, 향후 몇 달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곧 한화오션의 LNG선 수주 공시가 기대됩니다.

[11월4주] ▲ Equinor의 LNG선 신조 용선 입찰전에, 최종 5개 선주군으로 압축
[09월2주] ▲ 노르웨이 Equinor, LNG선 2+2척 용선 발주 입찰

△ BW LNG가 HD현대삼호에 발주한 LNG선 2척의 화물 탱크에 신개념 적용

BW LNG는 지난달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삼호)에 2028년 4분기 인도 예정으로 LNG선 2척을 발주
이 신조 LNG선 2척의 화물 탱크로 기존의 4개 대신 3개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 174,000-CBM급 선박 2척의 최종 탱크 설계에 대한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용선 논의에 달려 있어 아직 미정
이 선박들이 "고객과 함께 추가 개발할 흥미로운 기술적 옵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음
화물창 설계 업체인 GTT는 2022년부터 3탱크 솔루션을 홍보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언급을 거부
GTT는 2022년 선급 협회인 DNV와 Bureau Veritas로부터 3개의 화물 탱크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LNG선 개념에 대한 기본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
당시 GTT는 동일 크기의 3개 탱크 또는 선수(bow-mounted) 소형 탱크 1개와 중앙 대형 탱크 2개로 구성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음
GTT는 3탱크 설계가 낮은 화물 자연 기화율(boil-off rate)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조선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한 브로커는 탱크 충전 수준 제약 때문에 이 솔루션이 트레이딩 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
올해 GTT는 아시아의 7개 해운 파트너와 함께 3탱크를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LNG선 설계를 위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JDP)를 체결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LNG선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핵심 요소로 속도와 크기를 꼽음

[11월5주] ▲ BW LNG, HD현대그룹에 LNG선 2척 신규 발주

▲ Clarksons Research 스티브 고든 "VLCC 겨울 강세… LNG 시장은 곧 폭발적 성장"

VLCC 운임 수익: 하루 10만달러 이상을 넘기며, 탱커 시장은 겨울 강세 예상
OPEC 증산 재개, 제재(sanctions)도 오히려 시장에 순풍(tailwind) 으로 작용
탱커 잔고는 매우 낮아서, 향후 단기·중기 시장 강세 요인
드라이 벌크도 2025년 하반기 반등. 상반기 대비 하반기 성과 개선, 특히 케이프사이즈가 강세
대중국 수입 증가세 둔화가 계속 진행. 최근 2년간 중국은 연간 4억톤 추가 수입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추세 대비 부진
상반기 관세(tariffs) 변화는 드라이 시장에 큰 영향 없음
컨테이너선은 단기 강세이나 '레드시 복귀' 시 용선료 및 운임 조정 위험이 있음
현재 컨테이너 시장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규모 선복 인도가 대기
LNG선 시장은 연중 약세에서 최근 4~5주 강하게 반등
고든은 LNG 시장이 거대한 물량 성장 때문에 매우 기대된다고 분석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해운은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산업
중국은 세계 최대 해운시장에서 전 세계 수입량의 25%가 중국행, 컨테이너 수출의 1/3가 중국행
선대 규모도 중국이 17% 세계 1위, 그리스는 16%로 2위
15년 이상 선박 대부분은 비친환경(non-eco)이어서, 오늘날 요구되는 속도·에너지 효율·탄소규제에 미부합
여전히 많은 노후선이 있으며, 향후 대규모 교체 수요가 필연적이라고 전망

▼ Poten & Partners 중국 LNG 수요 감소 전망

Poten & Partners는 중국의 LNG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며, 이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
중국은 일반적으로 LNG 수입량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중국이 향후 5년 또는 장기적으로 LNG, 특히 미국산 LNG 물량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지에 대해 의문 제기
약 220MTPA 규모의 신규 LNG 공급 물량이 건설 중이며, 이는 기존 420MTPA 규모 시장에 추가됨
2025년은 기록적인 해로, 6개의 미국 LNG 프로젝트가 최종투자결정(FID)을 완료
현재 FID 완료된 프로젝트만으로 2032년까지 LNG 공급은 충분
총 38MTPA 규모의 5개 프로젝트가 추가로 FID를 결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이후에는 '삽을 뜰 준비가 된' 프로젝트 부족으로 미국에서 일시적 소강상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북미에서 약 156MTPA 규모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12개의 LNG 프로젝트가 건설 중
신규 프로젝트의 LNG 물량이 어디로 향할지 질문이 제기
Poten은 남아시아를 대안 시장으로 보지만, 수요 경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LNG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유럽 LNG 수요는 2025년 약 124MTPA에서 2026년 약 141MTPA으로 증가 예상.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2026년 유럽의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LNG 손실 대처 방안
Poten 분석가들은 2027년 미국과 카타르로부터 최대 신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어 일부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
Poten의 글로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총괄인 Jason Feer는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총 100건의 화물 취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TotalEnergies, Papua LNG FID 향해 핵심 단계 진입

TotalEnergies가 파푸아뉴기니(PNG) 정부·지방정부·토지 소유주(landowners)와의 대규모 협상 준비 중. 핵심 관문 'Landowner Forum' 준비
이 'development forum'은 프로젝트 이익 배분(Benefit Sharing Agreement) 합의를 위한 필수 절차
합의가 이루어져야 Papua LNG가 최종투자결정(FID)로 나아갈 수 있음
PNG 정부는 모든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22.5% back-in 권리 보유
토지 소유주는 여러 'clans'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권익 배분이 핵심 쟁점
Elk·Antelope 필드 주변 Clan 약 150개, 파이프라인 경로에도 비슷한 숫자 존재
Clan별 4명 대표 참석 시, 약 1,200명 규모의 대형 협상이 필요
포럼 개최지는 Gulf Province의 Kerema로 확정.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준비 상당히 어려운 상황
Papua LNG 프로젝트 지분 구조는 TotalEnergies 37.55%, ExxonMobil 37.04%, Santos 22.83%, JX Nippon 2.58%, PNG 정부: 22.5% back-in 권리
자원량은 약 6.5 Tcf 가스, 약 5,700만배럴 콘덴세이트에서, 생산능력 5.6MTPA
EPC 입찰·계약도 속도를 냄. 프로젝트의 EPC 패키지는 입찰 후 계약 체결 단계로 접어듦. FID는 2026년 목표
TotalEnergies는 PNG 최초의 심해 탐사정, Mailu-1 시추를 2026년 1분기에 착수 예정
Mailu는 초대형 액체 자원(liquids) 잠재력이 큰 'giant prospect'. 파트너는 Petronas, 시추선은 Noble Viking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 2026년 2월의 1개 확정 + 1개 옵션이며,
확정 1공 비용은 34.2백만달러(mobilisation·demobilisation·MPD 포함, 변동 성과 보너스 제외)

△ Knutsen OAS Shipping은 한화오션 건조 LNG선 1척을 이태리 Edison에 용선

Knutsen OAS Shipping이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dison으로부터 LNG선 1척에 대한 용선 계약을 수주함
한화오션이 건조 중인 174k-CBM(완전 재액화 시스템)으로 2028년까지 인도되어 운영을 시작할 예정
Edison은 이 신조선을 향후 그룹의 전환 전략에 따라 증가할 장기 FOB(Free-On-Board) 계약 물량의 LNG 화물 관리 및 공급을 위해 선대에 편입할 것이라 밝힘
Edison은 2028년부터 최대 15년 동안 Shell International Trading Middle East로부터 연간 약 0.7 Mtpa(연간 약 10억 cbm)의 미국 LNG를 구매할 예정
이탈리아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LNG 공급망 내에서 운영 유연성을 높이고 국제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Edison의 전략
Knutsen과 Edison은 2018년에 30k-CBM급 Ravenna Knutsen호(2021년 건조)를 공동 건조하며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이 선박은 LNG 벙커링용으로 사용 중
현재 Edison은 매년 약 140억 cbm의 천연가스를 이탈리아로 수입하며, 이는 이탈리아 국내 수요의 23%를 충족
Edison의 천연가스 수입 계약은 Qatar (64억 cbm), Libya (44억 cbm), Algeria (10억 cbm), Azerbaijan (10억 cbm), 미국 (14억 cbm)

△ 폴란드 Gaz-System, LNG FSRU 2단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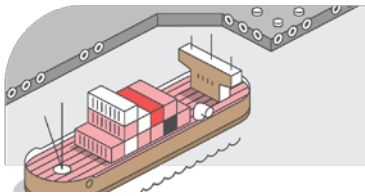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폴란드는 러시아 가스 공급 불안 이후, LNG 수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
현재 폴란드는 Swinoujscie(슈비노우이시치) LNG 터미널을 운영 중이고
그단스크 FSRU는 두 번째 LNG 수입 허브가 될 예정. 6.1 Bcm/년, 2028년 1분기 가동 예정
폴란드 국영 가스망 운영사 Gaz-System은 그단스크(Gdansk) 항만에서 추진 중인 2번째 FSRU를 4.5 Bcm/년으로 제시. 원래 계획
시장 수요는 계획의 4배 이상이지만, Gaz-System은 확대를 결정하지 않음
Gaz-System은 2025년 10월, 국내외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FSRU 2호기 수요가 계획 대비 4배 초과
2031~2032년 사이 연 18 Bcm 피크 수요 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Gaz-System은 비구속(non-binding) 수요 조사에서는 실제 주문보다 과도하게 수요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계획 유지
FSRU 2호기 FID는 바인딩 단계 오픈 시즌 후에 결정. 현재 수요를 보았을 때 그단스크 LNG 터미널 확장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언급
2023년에는 시장 관심 부족으로 2호기 개발이 일시 보류된 바 있음
FSRU 1호기용 육상 터미널 + 부지 인프라는 향후 2호기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태

△ 모로코 FSRU 2기 기반 터미널. 2027년부터 가동. FSRU 개조 유망

모로코 에너지전환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nergy Transition & Sustainable Development)는 두 가지 국제 인프라 입찰을 개시함
하나는 FSRU 확보 절차의 시작이고, 다른 하나는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건설 입찰
지중해 연안의 Nador West Med 항구. Q-Flex-sized LNG선을 수용 가능
모로코는 연간 51억 입방미터(Bcm) 용량의 FSRU를 찾고 있으며, 피크 기간에는 75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함
선정된 공급자는 선박을 제공하고 안벽에 장비를 설치하며, 자산은 완료 후 항만 당국으로 이전
모로코는 FSRU 프로젝트와 그리드 연결 비용을 2억 9,400백만달러(27억 3천만 디르함)로 책정
1월 30일 마감 기한까지 응답한 업체들이 사전 자격을 얻으며, 이후 2026년 1분기에 공식 입찰이 시작 예정
FSRU를 2027년까지 가동하려는 모로코의 목표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존 재가스화 장치 또는 LNG선-FSRU 개조만이 이 촉박한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고 해석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FID)부터 상업운영까지 27~3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용 선박(tonnage)을 확보한 공급자들이 유리
현재 기술적으로 용선 계약이 없는(charter-free) FSRU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모두가 모로코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는 않음
모로코는 대서양 연안의 Mohammedia나 Jorf Lasfar에 두 번째 LNG 수입 터미널 설치를 검토 중이며, 남부 지역 공급을 위한 세 번째 시설(Dakhla port)에 대해서도 언급
모로코는 산업 및 전력 성장과 석탄 사용 감축으로 인해 가스 수요가 2027년까지 12억 입방미터에서 약 80억 입방미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2030년까지 이 수치는 120억 입방미터까지 증가할 수 있음

△ 일본 JERA, 처음으로 일본 외 지역에 LNG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본의 주요 전력 회사인 JERA가 인도의 전력 회사 Torrent Power와 일본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장기 LNG 판매 및 구매 계약(SPA)을 체결함
공급은 2027년부터 시작하여 10년 동안, 0.27MTPA, 즉 연간 4척의 LNG 화물을 DES(Delivered Ex-Ship, 도착항 인도)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
이번 거래는 일본과 인도의 상호 보완적인 계절별 수요 패턴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JERA는 일본의 수요가 적은 달에 글로벌 선대의 활용도를 최적화할 수 있음
JERA 관계자는 인도를 포함한 고성장 시장으로의 확장이 지역 수요 패턴 보완, 다양한 수요 주기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 일본 및 아시아 전역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힘
JERA는 올해 여러 LNG 인수 계약을 발표한 주요 LNG 구매자임
10월에는 Williams' and GEP Haynesville II 프로젝트에서 15억달러 규모의 셰일 가스 패키지에 서명
최근에는 Alaska LNG 프로젝트에서 20년 동안 연간 1MTPA의 LNG 공급에 대한 투자의향서(LOI)에 서명
JERA는 3월 전략 보고서에서 장기 LNG 계약이 일본의 전기 가격 안정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수 기반이라고 언급
지난달 현지 언론은 JERA가 2030년까지 미국과 카타르로부터 조달하여 장기 LNG 계약 물량을 20% 증가시키고,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해외에 LNG 공급을 재판매하여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도
일본의 동종업체인 Mitsui & Co와 Tokyo Gas LNG는 11월에 미국 생산업체 Venture Global과 GSA(Gas Sale Agreements)를 체결한 바 있음
JERA는 또한 호주의 Ichthys 및 Darwin LNG와 같은 여러 액화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다올 선박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 HD현대중공업 VLGC 2척 수주. 클락슨 입력

2028년 인도물. 선주는 Unknown. 93k-CBM VLGC

▶ 컨테이너선

▽ 보험사들, MSC·Maersk·Zim을 상대로 엔진 고장 컨테이너선 사고 소송 제기

화물 보험사들이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AP Moller-Maersk, Zim을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7,943-TEU MSC Archimidis (2006년 건조)가 2021년 11월, Archimidis호가 멕시코 아카풀코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약 12일간 표류
선주 Capital Product Partners(현 Capital Clean Energy Carriers)가 MSC에 용선(charter)하여 운항 중이며, Zim, Maersk는 같은 서비스 참여자였음
선박은 그리스 구조회사 Five Oceans Salvage가 두 예인선을 동원해 파나마 Balboa 항으로 예인 후 수리
계약 위반, 항해불능(unseaworthiness), 과실(negligence), 구상(indemnity)으로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은 2백만달러 이상
Five Oceans Salvage가 수행한 구조작업 비용은 중재 판정으로 총 15백만달러 지급 결정
세 선사는 안전한 운항 책임을 다하지 못해 엔진·제어시스템 관리 소홀해,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한다는 계약적 의무 불이행
사건 당시 선적 화물은 복수의 글로벌 기업이 포함. LG전자, 두산산업차량, 넥센타이어, 기아 등 한국 기업 포함
☞ 엔진과, 선박 관리 모두 중요합니다.

▽ Hapag-Lloyd는 메탄올 D/F 4,500-TEU, 중국에 발주

독일 선사 Hapag-Lloyd가 메탄올 D/F 4,500-TEU 8척을 중국 Yantai CIMC Raffles Offshore에 발주
2028년과 2029년에 인도 예정이며, 총 계약규모는 500백만달러
Hapag-Lloyd는 추가로 신조선 14척에 대한 장기 용선 계약도 확정. 1,800-TEU 4척, 3,500-TEU 6척, 4,500-TEU 4척으로 구성
이 용선 선박들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인도될 예정
Hapag-Lloyd는 신조 선박들이 노후 선박을 대체하고 선대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며 용선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이 최첨단 선박들을 운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
이번 계약은 Hapag-Lloyd가 5,000-TEU 미만의 소형 선박 22척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의 실행
Hapag-Lloyd는 현재 Yangzijiang Shipbuilding과 New Times Shipbuilding에 각각 9,200-TEU 12척과 16,600-TEU 12척 등 총 24척의 LNG D/F 잔고 보유
이번 중국 발주는 Hapag-Lloyd가 자체 비용으로 발주한 첫 메탄올 D/F 엔진 선박. 그동안 회사는 LNG D/F에 집중해 왔으며 총 37척의 D/F 선박 인도 예정
Hapag-Lloyd는 용선 선대를 통해 메탄올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음. 작년 Seaspan Corp와 5척의 10,100-TEU를 메탄올 D/F 추진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
2024년 11월 중국 에너지 생산업체 Goldwind와 연간 250,000 메트릭 톤의 그린 메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
Hapag-Lloyd는 2030년까지 선대 운영에서 발생하는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2년 대비 약 3분의 1 감축할 계획이며, 2045년까지 선대 운영의 넷제로(Net-zero) 달성 계획
Hapag-Lloyd의 3분기 그룹 이익은 작년 동기 9억 5,500만 유로에서 1억 3,800만 유로로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더선 발주를 진행 중

▶ 탱커

▲ Clarksons 의견: 탱커 시장,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움

Clarksons Securities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가능성, 홍해·수에즈 정상화 기대가 시장에서 탱커 가치 하락 요인으로 과대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
전체 해운주는 1% 상승했지만, 탱커주는 오히려 하락. 원유 탱커주 주간 -3%, PC선 소유주 주간 -1%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 홍해/수에즈 경로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단기 가능성이 낮으며, 발생하더라도 점진적 변화일 것이라고 평가
반면, 시장은 아직 컨탱고(contango)와 부유식 저장(floating storage)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음
2028년 인도 기준 VLCC 신조선가 128백만달러. 막 인도된 VLCC 중고가 148백만달러로 20백만달러의 프리미엄
스크러버 장착 Eco-VLCC 기준 1년 용선료는 67,750달러/일
Ukraine 평화가 오더라도, 오히려 탱커 운임 상승 가능성도 존재
Braemar 리서치는 러시아산 원유가 전쟁 전 시장(EU) 으로 복귀하면,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인도/중국 장거리 흐름 감소 → 톤마일 감소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젊은 선대(러시아 회피로 다른 시장 담당)에 대한 공급 부족이 구조화될 수 있어서 지지 요인도 있음
즉, 톤마일 감소보다 선복 부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

▽ 그리스 선주 Vyron Vasileiadis는 중국에 컨테이너선과 LR2 발주

Vyron Vasileiadis의 V Group of Companies는 급격한 성장을 위해 컨테이너선과 LR2 탱커 신조 계약을 확정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회사 OceanV를 설립. 이는 신규 컨테이너선 관련 사업을 관리하게 됨
OceanV는 중국 Huangpu Wenchong Shipbuilding에 에코 1,900-TEU 컨테이너선 2척(확정)과 옵션 2척에 대한 확정 계약을 체결. 인도는 2028년과 2029년 예정
OceanV는 피더 컨테이너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V Group은 이 시장 부문에서 관련성 있고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Vasileiadis는 LR2 탱커 시장에도 진입하며, 기존 탱커 선주사인 Venergy Maritime을 통해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에 LR2 탱커 2척을 건조. 인도는 2029년 1분기 예정
Venergy Maritime은 이미 현대식 MR 탱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4월 MR 탱커 1척 인수를 시작으로 현대 중고 선박 2척 추가 인수,
한국 K조선에도 2027년 인도 예정인 MR 탱커 4척 발주 등 공격적인 확장 캠페인을 진행
K조선에 MR 탱커 2척(확정)과 옵션 2척을 추가 발주할 가능성도 전함
Vasileiadis는 올해 에코 선박에 520백만달러를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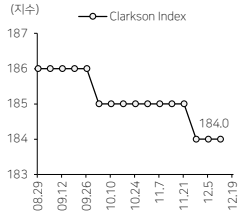
▶ 오프쇼어/디펜스

▲ 한화그룹. 호주 오스탈 조선 인수 승인 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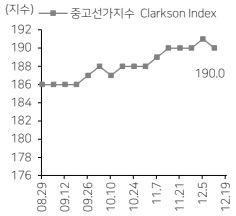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 기업 오스탈(Austal)의 지분을 기존 9.9%에서 19.9%로 늘리는 것을 호주 정부가 승인
이번 승인으로 한화는 오스탈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는 조건부로 지분 확대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으며, 19.9%를 초과한 추가 확대는 허용하지 않기로 함
오스탈은 미국에서도 조선소를 운영하는 방산 조선업체로, 특히 미국 해군 소형함 및 지원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
한화는 작년 경영진 거절로 인수가 무산된 이후, 올해 장외거래를 통해 9.9% 지분을 인수했으며,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도 지분 확대 허가를 받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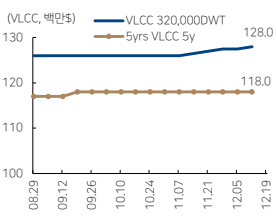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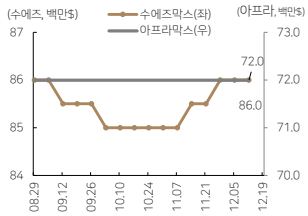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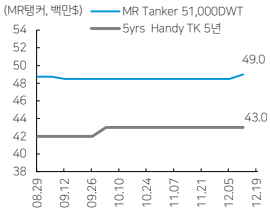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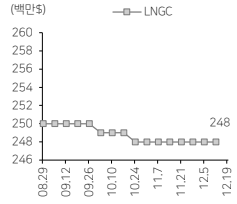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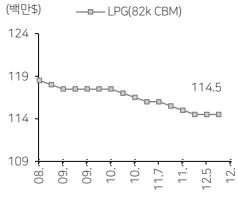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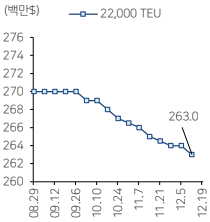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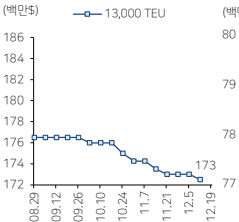
▶ 가스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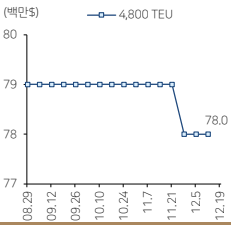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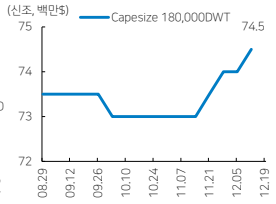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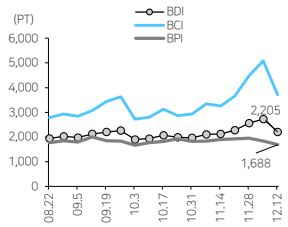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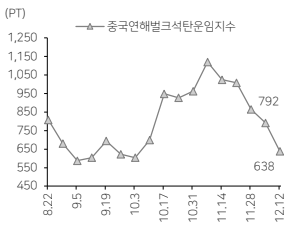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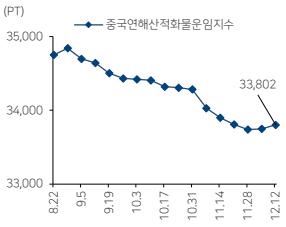
운임지수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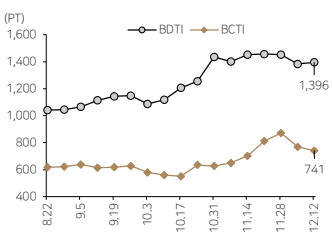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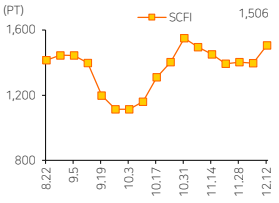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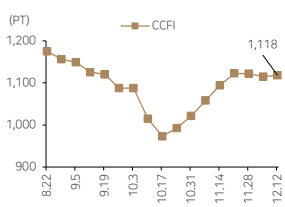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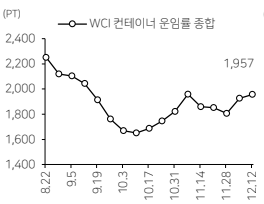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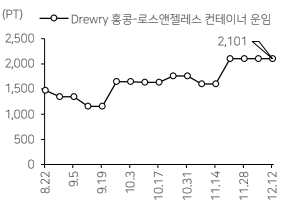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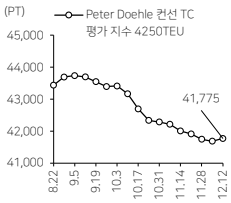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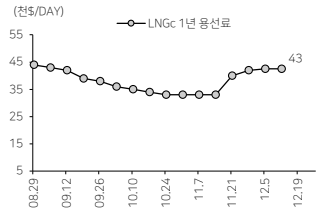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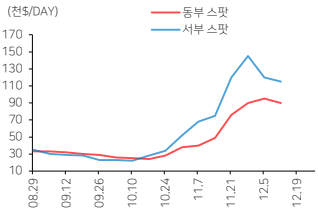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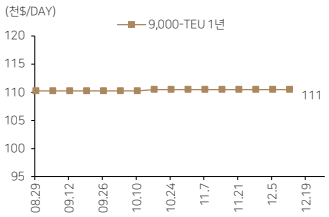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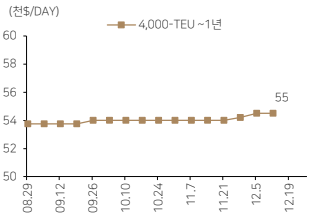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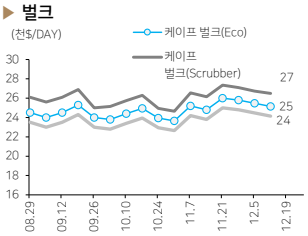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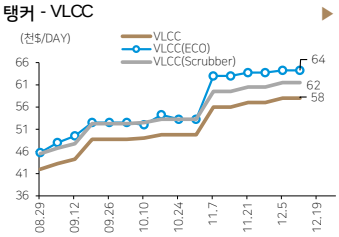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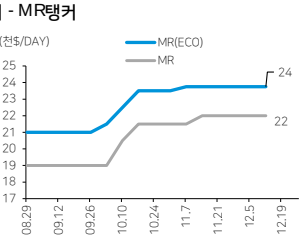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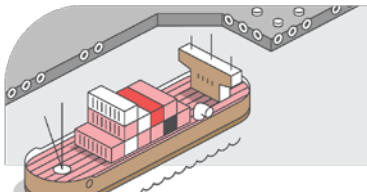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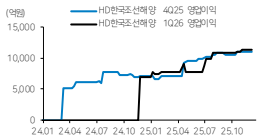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12.14 [8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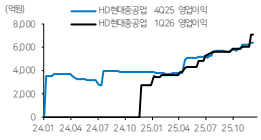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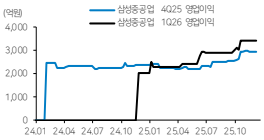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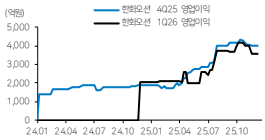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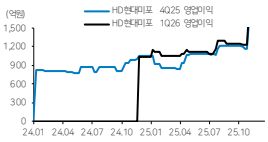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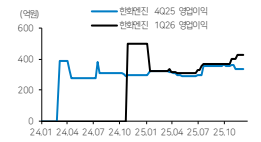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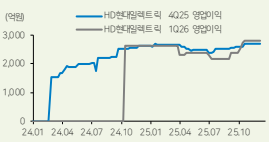
▶HD현대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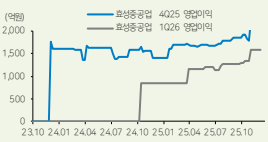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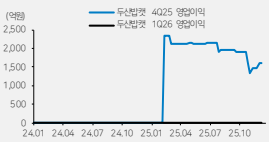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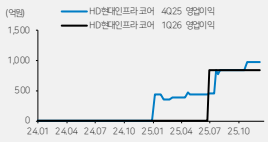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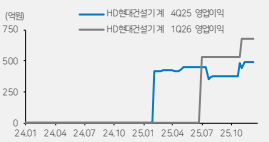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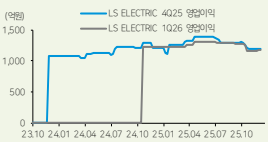
▶HD현대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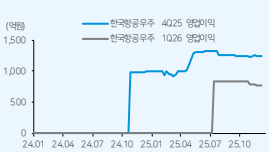
▶HD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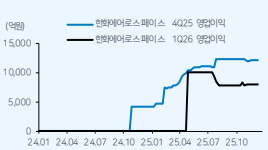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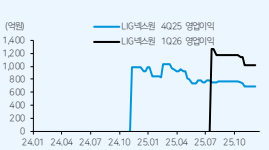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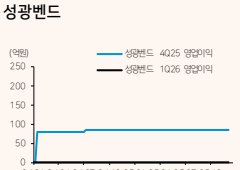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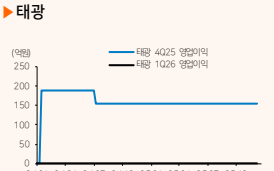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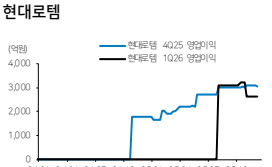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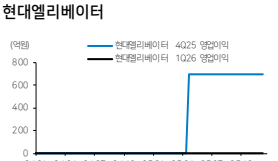
▶태광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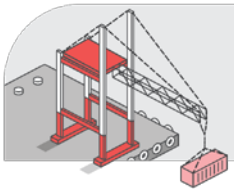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5 E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11.15	25.11.22	25.11.29	25.12.06	25.12.12	Change(%)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VALUATION 2025 PER	종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31,420	32,054	31,783	32,130	31,939	33,124	33,326	33,326	33,732	5%	6%	13.3	449,500
	HD현대중공업	15,020	14,517	14,815	15,032	15,719	15,719	15,751	15,625	15,625	4%	-1%	36.7	573,000
	삼성중공업	578	695	700	752	758	755	755	755	748	-1%	-1%	35.2	26,300
	한화오션	2,511	3,081	3,112	3,157	3,166	3,131	3,107	3,100	3,100	-2%	-2%	36.8	114,100
	HD현대미포	6,129	6,091	6,068	6,026	7,993	8,119	8,119	8,119	8,119	35%	2%	27.5	223,000
조기	한화엔진	968	1,166	1,166	1,165	1,151	1,179	1,179	1,179	1,179	1%	2%	39.1	46,150
	STX엔진	648	648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0%	0%	29.5	38,450
	HD현대마린엔진	1,221	1,516	1,706	1,735	1,963	2,019	2,019	2,019	2,019	16%	3%	43.9	88,700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5,665	4,920	4,896	4,896	5,805	5,805	5,805	5,805	5,805	19%	0%	18.6	107,800
	HD현대인프라코어	748	886	913	913	987	987	987	987	987	8%	0%	17.2	16,940
	두산밥캣	5,467	5,147	5,124	5,054	4,470	4,470	4,470	4,468	4,468	-12%	0%	13.9	62,30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495	452	452	444	313	307	306	306	296	-33%	-5%	269.1	79,700
	HD현대일렉트릭	18,907	18,693	18,693	18,823	19,514	19,514	19,557	19,798	19,798	5%	1%	43.7	866,000
	LS ELECTRIC	11,170	10,010	10,010	10,005	9,555	9,555	9,541	9,444	9,444	-6%	-1%	53.6	506,0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2,531	2,598	2,670	2,630	2,269	2,271	2,229	2,229	2,229	-15%	-2%	51.6	115,1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5,208	31,779	31,537	32,830	32,252	32,104	32,117	32,117	32,117	-2%	0%	29.9	961,000
	LIG넥스원	13,443	13,836	14,472	14,368	14,189	14,189	14,099	14,099	14,099	-2%	-1%	27.2	383,000
	한화시스템	1,023	1,004	990	990	1,206	1,206	1,206	1,206	1,206	22%	0%	44.0	53,100
	현대로템	6,885	7,071	7,245	7,380	7,546	7,546	7,545	7,545	7,521	2%	0%	24.8	186,400
	현대엘리베이터	6,840	8,552	8,552	8,552	8,552	8,552	4,298	4,295	4,295	-50%	-50%	21.8	93,500
피팅	성광벤드	1,844	1,659	1,525	1,442	1,468	1,468	1,468	1,468	1,331	-8%	-9%	20.6	27,400
	태광	1,879	1,547	1,592	1,702	1,713	1,713	1,713	1,875	1,875	10%	9%	13.1	24,600
	하이록코리아	3,644	3,644	3,644	3,804	3,804	3,804	3,804	3,804	3,804	0%	0%	8.7	33,150

그룹	종목	2025 B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11.15	25.11.22	25.11.29	25.12.06	25.12.12	ROE 2025	2026	VALUATION 2025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182,250	182,622	181,647	181,344	182,179	183,215	183,016	183,016	183,016	18%	24%	2.5
	HD현대중공업	75,831	75,171	75,595	75,602	77,057	77,183	77,217	65,166	65,166	24%	33%	8.8
	삼성중공업	6,122	6,265	6,270	6,218	6,089	6,090	6,090	6,090	6,090	12%	20%	4.3
	한화오션	18,454	18,981	19,025	19,050	18,990	18,960	18,933	18,925	18,925	16%	21%	6.0
	HD현대미포	56,551	56,314	56,356	56,303	58,147	58,373	58,373	58,373	58,373	14%	20%	3.8
조기	한화엔진	5,311	5,311	5,311	5,311	5,311	5,827	5,827	5,827	5,827	20%	27%	7.9
	STX엔진	8,298	8,298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15%	62%	4.3
	HD현대마린엔진	11,157	11,084	11,040	11,090	11,490	11,527	11,527	11,527	11,527	18%	31%	7.7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00,299	101,278	102,916	102,916	103,613	103,613	103,613	103,613	103,613	6%	10%	1.0
	두산밥캣	73,206	75,321	75,292	75,569	75,085	75,085	75,085	75,828	75,828	6%	8%	0.8
	HD현대인프라코어	10,174	10,419	10,668	10,668	10,683	10,683	10,683	10,683	10,683	9%	13%	1.6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2,447	12,463	12,463	12,424	12,120	12,099	12,088	12,088	12,043	2%	5%	6.6
	HD현대일렉트릭	55,427	54,834	54,834	54,928	55,678	55,678	55,757	55,757	55,757	36%	40%	15.5
	LS ELECTRIC	69,547	68,409	68,409	68,347	68,097	68,097	68,110	68,076	68,076	14%	19%	7.4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19,678	19,672	19,668	19,627	19,333	19,335	19,315	19,315	19,315	12%	18%	6.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8,701	162,890	166,452	170,261	171,183	172,178	172,064	172,064	172,064	19%	24%	5.6
	LIG넥스원	66,204	66,690	66,674	66,548	57,015	57,015	57,645	57,645	57,645	24%	28%	6.6
	한화시스템	14,015	15,304	15,469	15,469	17,475	17,475	17,475	17,475	17,475	7%	8%	3.0
	현대로템	25,417	25,560	25,678	26,203	27,107	27,107	27,317	27,317	27,401	27%	31%	6.8
	현대엘리베이터	35,782	39,414	39,414	39,414	39,414	39,414	31,305	31,305	31,305	14%	15%	3.0
피팅	성광벤드	21,956	21,579	21,466	21,400	21,447	21,447	21,447	21,447	21,447	6%	10%	1.3
	태광	23,633	22,839	23,022	23,128	23,129	23,129	23,129	23,156	23,156	8%	9%	1.1
	하이록코리아	37,176	37,176	37,176	39,135	39,135	39,135	39,135	39,135	39,135	10%	11%	0.8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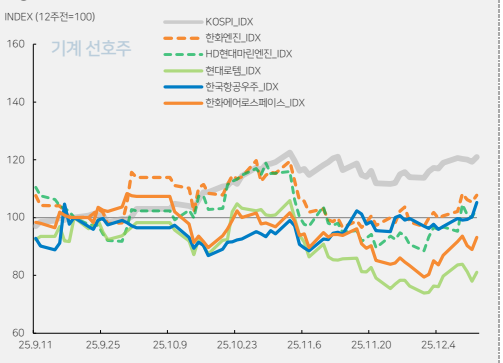
2025.12.14 [801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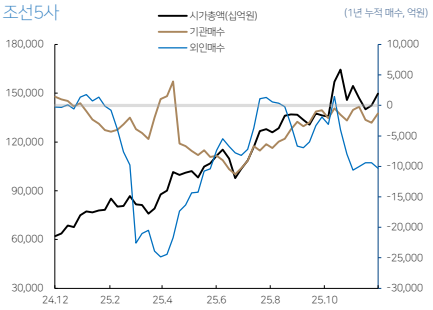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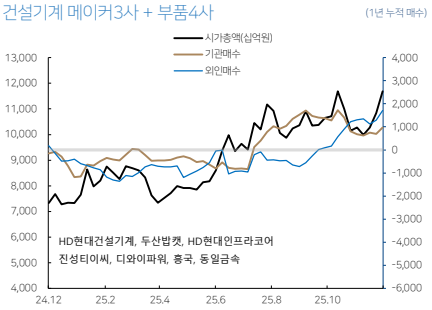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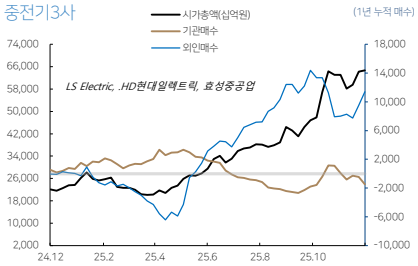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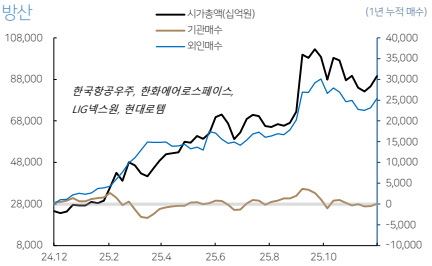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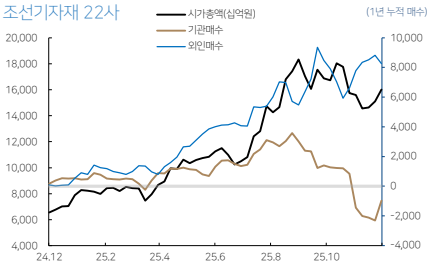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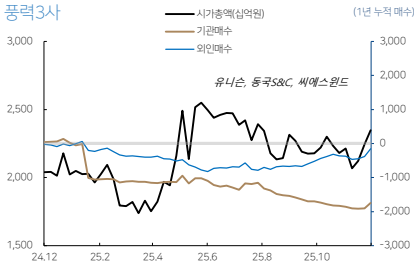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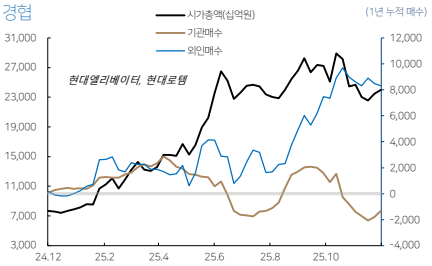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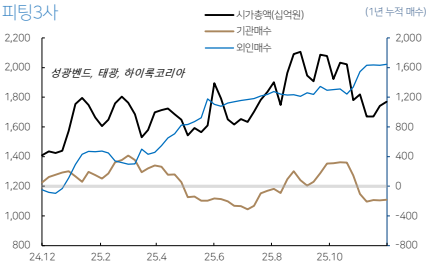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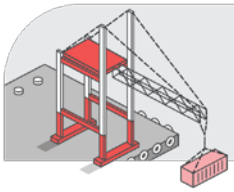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5.12.14 [8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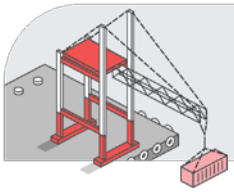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267	12.1%	16.2%	16.2%		76%	74%
	HD현대인프라코어	2,172	13.7%	20.2%	11.6%		138%	117%
	두산밥캣	4,044	4.2%	6.5%	16.8%		51%	79%
대형	CATERPILLAR	279,800	-0.9%	4.3%	41.3%		57%	157%
	KOMATSU	30,889	-1.2%	-3.8%	-1.4%		19%	64%
	HITACHI CM	6,359	-1.2%	0.1%	-4.1%		30%	49%
	VOLVO	65,059	-0.1%	10.4%	7.0%		10%	74%
중국	SANY	27,729	0.1%	3.2%	3.1%		29%	28%
	XCMG	18,841	2.1%	9.0%	14.7%		38%	112%
소형	DEERE	131,056	2.0%	0.8%	2.4%		10%	12%
	CNHI	12,339	4.9%	-4.2%	-13.6%		-16%	-37%
	TAKEUCHI	2,240	-1.0%	10.6%	35.1%		44%	138%
	TEREX	3,379	3.4%	12.4%	-2.8%		4%	24%
	SUMITOMO HI	3,445	1.4%	6.7%	28.4%		34%	52%
	SANDVIK	39,398	0.0%	-0.8%	20.4%		40%	55%
	UNITED RENTALS	52,069	2.7%	-4.9%	-16.1%		5%	131%
건설기계	디와이파워	103	5.3%	11.0%	8.7%		19%	8%
부품	진성티이씨	209	7.8%	8.2%	12.9%		54%	-1%
	우림기계	106	12.7%	90.6%	129.1%		141%	76%
	흥국	45	4.4%	9.5%	5.4%		-2%	-13%
	동일금속	49	0.0%	-0.1%	-2.7%		-2%	-54%
	KUBOTA	16,774	0.9%	7.5%	24.6%		20%	16%
	가야바	1,468	0.7%	9.7%	14.2%		66%	169%
	Hengli	20,972	-2.3%	27.4%	25.4%		101%	75%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7,631	8.5%	11.2%	22.5%		109%	14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3,246	7.1%	-1.0%	3.5%		199%	1226%
	LIG넥스원	5,692	2.1%	-5.7%	-19.7%		93%	335%
	한화시스템	6,794	12.5%	-1.3%	1.3%		144%	378%
	아스트	167	1.8%	15.5%	12.9%		20%	-87%
	퍼스텍	131	1.4%	-1.6%	-8.6%		36%	33%
	하이즈항공	28	-0.7%	-1.1%	-7.9%		42%	-32%
	오르비텍	84	10.6%	9.6%	21.5%		133%	-8%
방산/항공	Boeing	160,044	1.2%	4.5%	-11.0%		20%	11%
	Airbus	180,589	-1.4%	-8.5%	5.5%		22%	79%
방산	LOCKHEED MARTIN	111,129	6.2%	5.1%	3.5%		-3%	0%
	Raytheon Technologies	239,542	4.4%	0.5%	13.4%		52%	82%
	Northrop grumann	81,316	3.8%	2.0%	-1.9%		19%	8%
	GENERAL DYNAMICS	91,163	0.1%	-3.4%	4.5%		28%	37%
항공	BOMBARDIER	16,363	-0.8%	5.5%	46.0%		124%	310%
	EMBRAER	11,855	3.5%	0.5%	5.0%		75%	522%
항공 부품	ROLLS ROYCE	123,207	1.1%	-4.9%	2.0%		91%	1156%
	SAFRAN	144,975	-0.5%	-6.1%	4.7%		39%	152%
	SPIRIT AERO	4,642	0.0%	9.3%	-3.3%		20%	44%
	TRIUMPH	#N/A N/A	0.0%	0.0%	0.0%		41%	144%
	MHI	90,026	1.8%	-3.9%	15.2%		81%	650%
	KHI	12,617	9.4%	11.0%	31.4%		83%	262%
	FHI	16,550	6.1%	-0.2%	14.2%		40%	56%
	IHI	20,369	-2.9%	0.9%	35.9%		148%	416%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311	4.1%	4.0%	7.9%		10%	-38%
	SK오션플랜트	844	10.7%	0.5%	-22.1%		56%	-11%
	세진중공업	705	2.2%	-5.2%	-5.2%		123%	214%
	유니슨	193	5.3%	-1.4%	32.1%		55%	-16%
	동국S&C	83	5.1%	2.1%	-7.3%		-9%	-58%
	태웅	403	6.8%	13.3%	-17.7%		189%	219%
	VESTAS	27,191	7.2%	4.3%	36.2%		79%	-12%
	GOLDWIND	9,657	7.1%	13.4%	39.0%		57%	53%
	NORDEX	8,022	11.7%	2.4%	35.1%		151%	138%
중전기	LS Electric	10,301	-1.2%	2.7%	73.0%		222%	797%
	효성중공업	12,447	-1.7%	-12.1%	60.0%		358%	2318%
	HD현대일렉트릭	21,117	3.8%	1.5%	67.3%		133%	1943%
	ABB	135,059	-0.7%	1.5%	5.8%		13%	107%
	Schneider	159,602	0.0%	-1.5%	7.8%		-3%	81%
	WEG	38,472	6.0%	10.3%	30.8%		-14%	32%
	Crompton Greeves	1,806	-2.3%	-9.7%	-22.4%		-38%	-27%
	TBEA	17,052	8.3%	-2.5%	58.0%		86%	52%
피팅	성광벤드	495	-1.4%	-4.5%	-21.4%		16%	99%
	태광	442	3.1%	-1.0%	-10.1%		51%	55%
	하이록코리아	264	2.3%	-2.5%	-6.6%		33%	55%
발전	두산에너빌리티	34,576	-0.5%	1.0%	29.0%		362%	392%
	비에이치아이	1,345	7.7%	53.2%	24.2%		385%	840%
	S&TC	611	-0.7%	4.2%	-27.9%		161%	546%
	DONGFANG	11,703	11.4%	6.3%	24.7%		58%	19%
	BHEL	10,970	2.8%	-0.6%	34.4%		18%	253%
	MHI	90,026	1.8%	-3.9%	15.2%		81%	650%
	IHI	20,369	-2.9%	0.9%	35.9%		148%	416%
	SIEMENS	223,165	1.7%	-5.9%	5.0%		24%	88%
	General Electric	316,244	5.6%	-3.0%	7.4%		81%	520%
	ALSTOM	13,184	5.6%	6.3%	21.3%		10%	13%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13,778	1.7%	-5.1%	-9.1%		274%	579%
	ALSTOM	13,184	5.6%	6.3%	21.3%		10%	13%
	Bombardier	16,363	-0.8%	5.5%	46.0%		124%	310%
	CNR	60,329	-0.8%	-1.8%	0.7%		-9%	-19%
	CAF	2,199	4.8%	0.6%	5.8%		60%	108%
	CSR	27,965	2.6%	-2.6%	4.3%		35%	93%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465	1.5%	21.7%	18.3%		63%	224%
	KONE	37,030	-0.1%	1.5%	6.9%		24%	25%
	THYSSENKRUPP	6,537	-4.9%	-3.7%	18.7%		189%	110%
	MITSUBISHI ELEC.	65,018	7.3%	11.2%	31.1%		82%	255%
	HITACHI	147,346	2.6%	-4.4%	28.6%		25%	253%
	SHANGHAI ELEC.	17,472	6.6%	-0.9%	24.8%		49%	139%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56	5.3%	21.8%	24.5%		43%	13%
기타	와이지원	130	2.5%	12.0%	6.3%		10%	-15%
	S&T중공업	1,100	13.1%	2.1%	-14.7%		156%	433%
	Amada	4,047	5.6%	5.7%	2.5%		31%	78%
	Moriseiki	2,449	-0.9%	-4.4%	-11.1%		7%	47%
	Jtekt	3,609	5.7%	9.5%	16.4%		57%	84%
	Okuma	1,610	-0.9%	5.5%	7.2%		15%	47%
	Makino	1,721	0.9%	-5.7%	-7.1%		49%	136%
	Gildemeister	4,333	0.2%	0.2%	1.1%		3%	12%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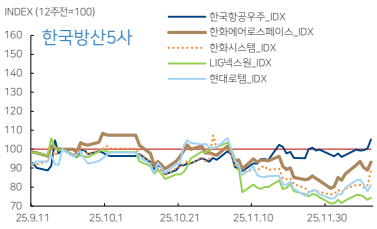
2025.12.14 [801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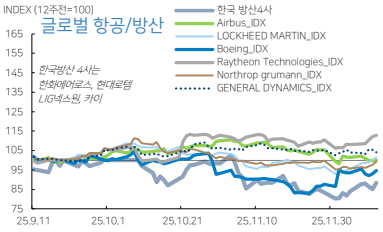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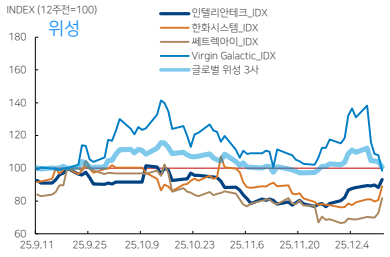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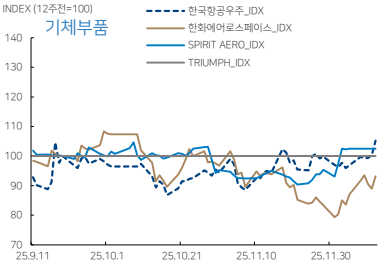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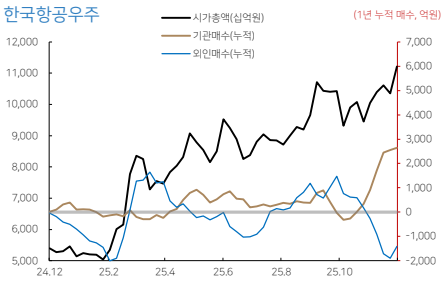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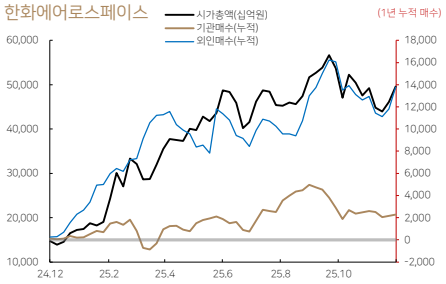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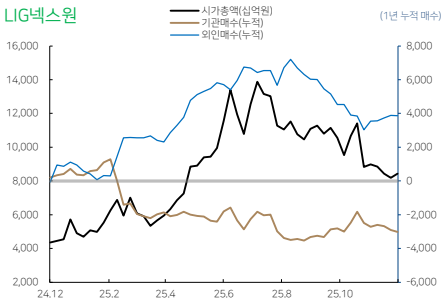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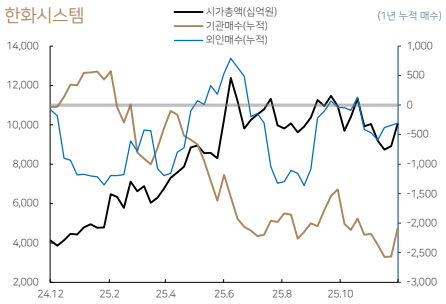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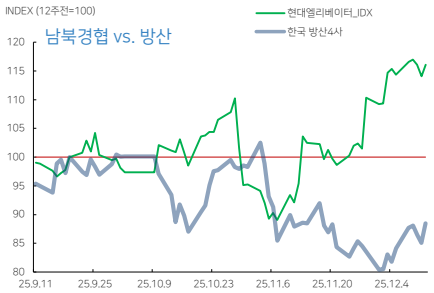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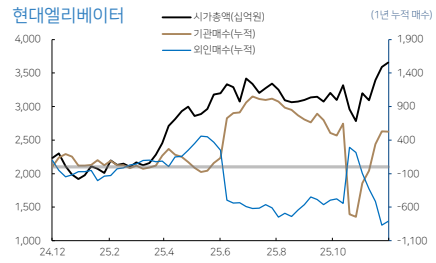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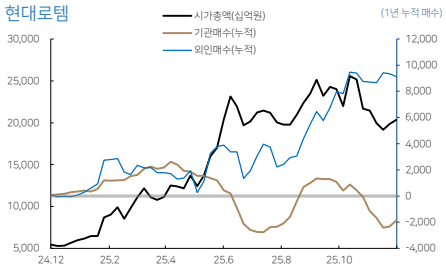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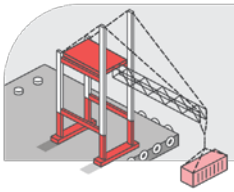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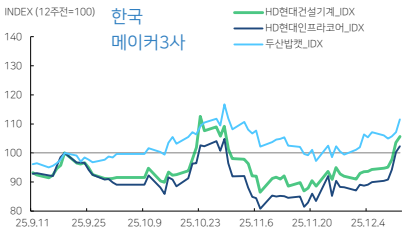
2025.12.14 [801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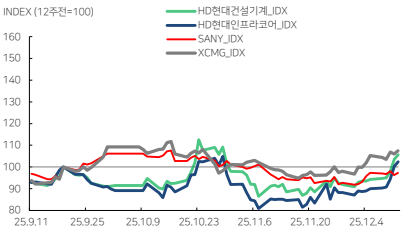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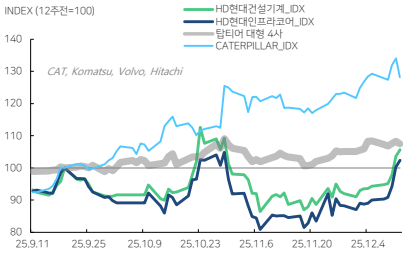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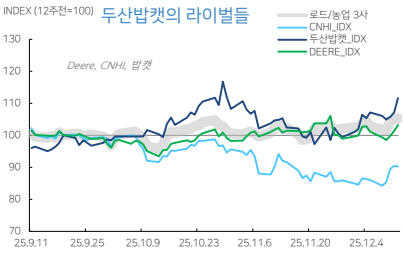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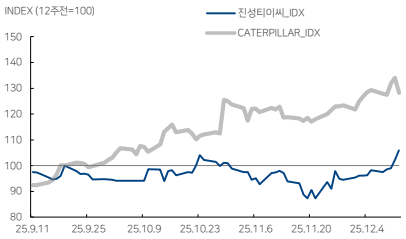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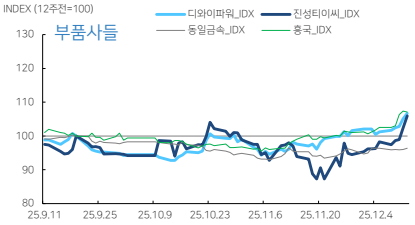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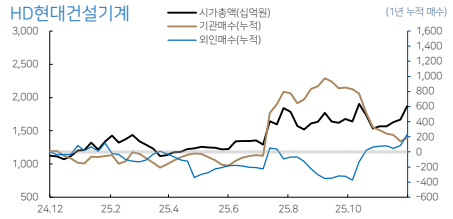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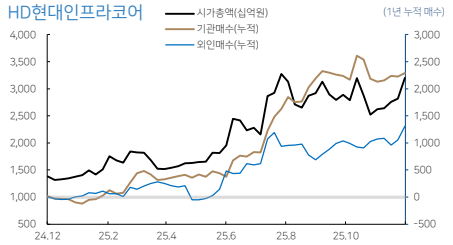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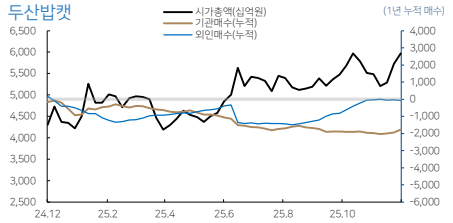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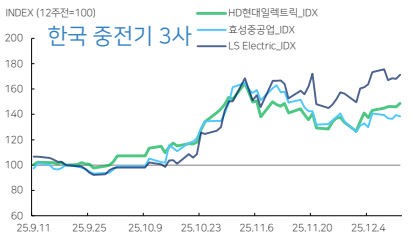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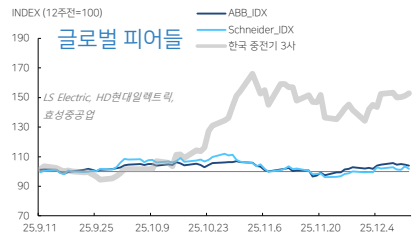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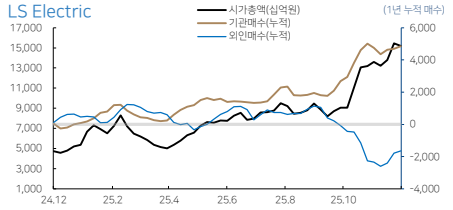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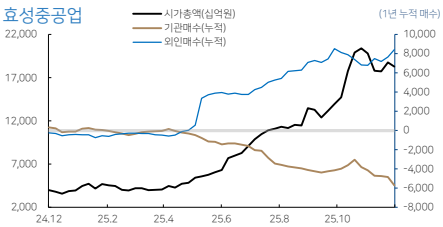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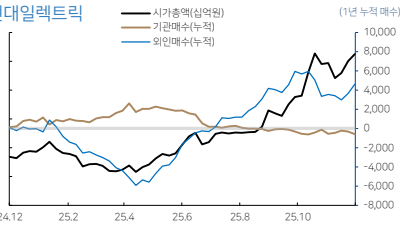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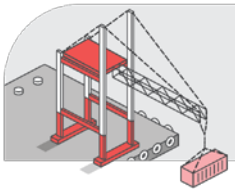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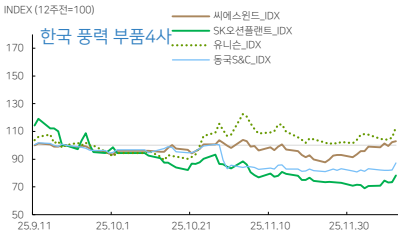
2025.12.14 [801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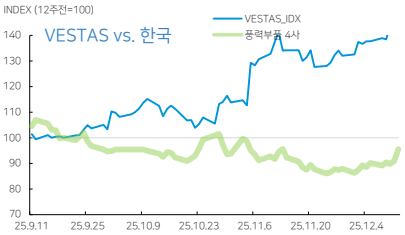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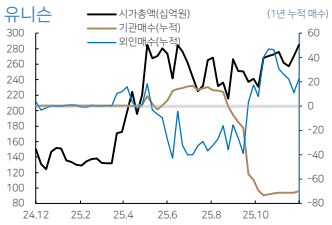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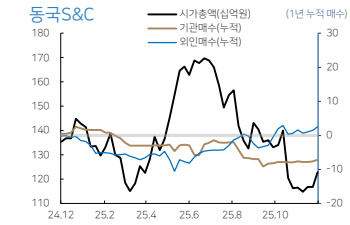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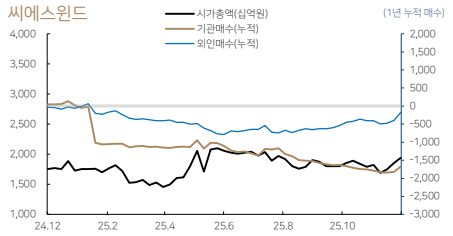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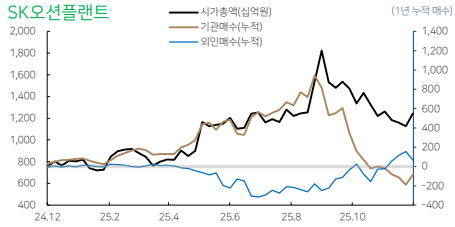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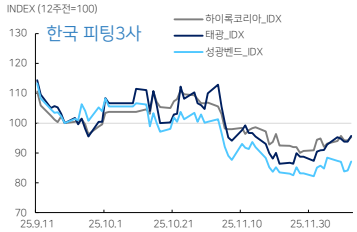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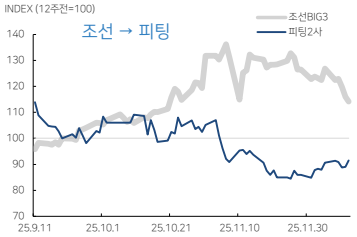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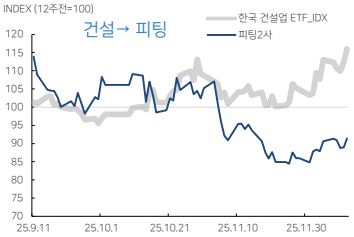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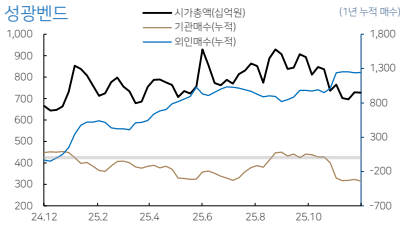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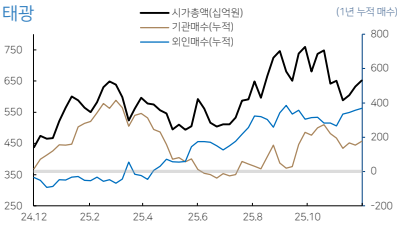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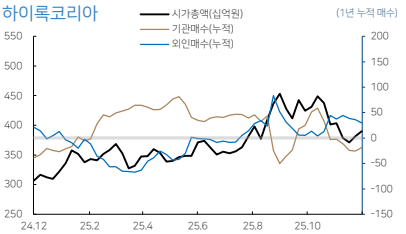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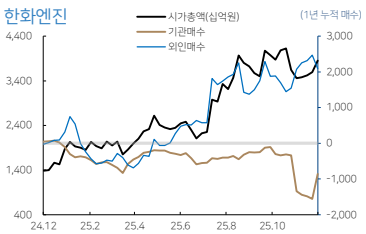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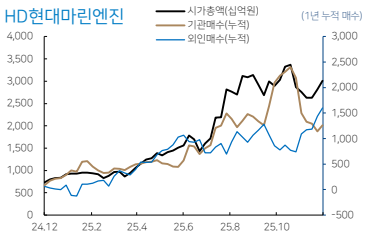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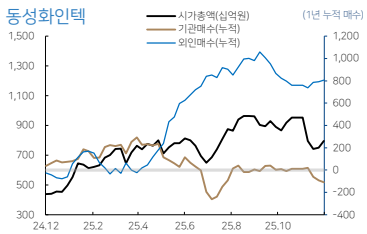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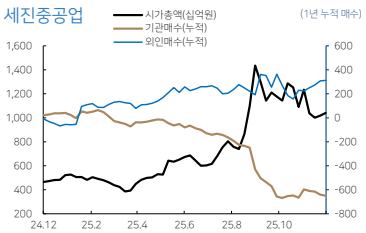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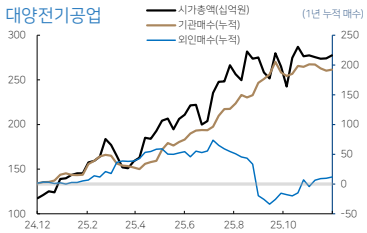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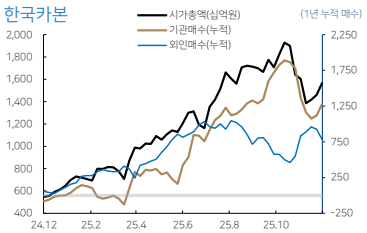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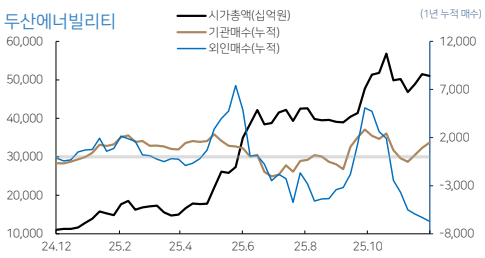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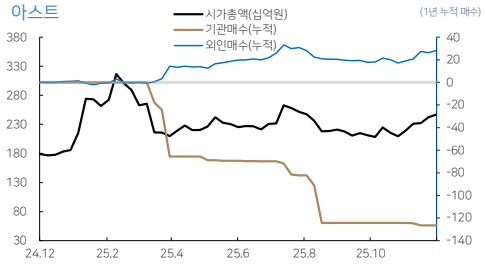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89.4% HOLD : 10.6%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